

【 특 집 】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 여진 - 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

김 선 민\*\*

┃ 차 례 ┃

1. 머리말
2. 일국사적 관점
3. 만주중심주의
4. 신청사와 변경사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몽케테무르와 이후 누르하치를 포함한 여진 - 만주족과 조선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기존의 한중관계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5세기 초 몽케테무르가 명과 조선 사이에서 이주를 반복했던 땅,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나 누르하치가 명과 조선을 제압하고 흥기한 곳은 현재 중국과 한국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다. 동아시아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민족중심의 역사서술이 발전하면서 중국과 한국 모두 이 지역의 역사를 자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20세기 초 일본과 러시아가 지배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 지역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몽케테무르와 그의 후손들이 활동했던 공간은 동아시아 근대국가들의 모순이 집적된 곳이었고, 각국의 변경이 된 ‘만주’의 역사를 검토할 때 먼저 근대사가 우선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여진 - 만주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조선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이 가운데 한국학계의 일부 연구는 중국의 전통적인 화이관과 조공질서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관계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학계의 여진사 연구가 대체로 여진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에 주목하기보다 이들을 하나의 통일적이고 고정적인 집단으로 전제하고 일정한 역사적 단계를 따라 “발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기존의 한중관계사의 국가중심적이고 본질주의적 틀을 대신하여 변경사적 관점으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를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만주와 조선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시기적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를 보다 새롭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한중관계사, 변경사, 일국사, 몽케 테무르, 누르하치, 일국사

## 1. 머리말

1404년(영락2) 명의 영락제는 요동 東寧衛 千戶 王脩(王可仁)을 조선에 파견하여 황제의 칙서를 전하게 했다. 즉위 초부터 북방의 몽고를 진압하는데 주력해온 영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북지역, 특히 두만강 일대의 여진인을 초무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지금 朕이 大位에 올라 天下가 태평하고 四海의 안팎이 모두 하나가 되었으나 너희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서로 統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중략) 지금 짐의 말에 따르면 印信을 주어 서로 統屬하게 하고 사냥하고 방목하여 각자 생업을 편하게 하고 상업을 경영하고 매매하여 편의대로 왕래하게 할 것이다.”<sup>1)</sup>

영락제의 칙서는 그동안 북방을 경영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조선의 여진 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즉시 藝文館提學 金瞻을 명으로 파견하여 태종의 주본을 전달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의

1) 『조선태종실록』 권7, 12a (태종4/4(갑술). 영락제의 사신으로 조선에 파견된 王可仁은 원래 조선의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여진 출신의 “向化人”이었다. 조선 태조의 휘하에 있다가 1390년 경에 명 홍무제에게 발탁되면서 이름을 王脩로 고쳤다.

동북면, 즉 “公嶮嶺부터 孔州·吉州·端州·莢州·雄州·威州 등은 모두 본국[조선]의 땅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선 왕실의 조상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이들의 분묘가 남아있는 땅이었다. 태종은 이어 명이 증원을 정복한 이래 “聖朝가 華外를 구분하지 않고 一視同仁하였음”을 지적하고 두만강 일대에 남아 거주하는 여진인들을 조선이 계속 관할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2)</sup> 태종은 또한 上護軍 朴齡을 동북면으로 파견하여 여진의 이탈을 단속하게 했다. 명의 의도는 여진인들이 땅을 버리고 명에 귀속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업에 힘쓰라는 데 있음을 설명하고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달래어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하며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3)</sup>

이때 명 영락제와 조선 태종이 각자의 세력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접촉한 대상은 몽케테무르였다. 그가 바로 1779년(건륭44)에 완성된 『滿洲實錄(Manju i yargiyan kooli)』에서 청 황실의 肇造로 숭상된 누르하치의 6대조 먼터무(Mentemu, 孟特穆)이다. 청 황실의 공식기록은 몽케테무르의 거주지가 “그의 선조가 살았던 오모호이 들판의 오도리 성에서 해 지는 방향으로 1500리의 앞에 숙수후 강, 홀란 하다, 허투 알라”였으며, 그가 이곳에서 선조의 원수들을 죽이고 계속 거주하면서 청 황실의 발상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sup>4)</sup> 반면 『조선태조실록』은 몽케테무르를 “吾都里 上萬戶 童猛哥帖木兒”로 소개하고 그가 1395년(태조4) 조선에 入朝하여 공물을 바쳤다고 기록한다. 이어 1399년(정종1)에는 “吾魯會 吾都里萬戶 童猛哥帖木兒”라 하여 몽케테무르가 吾魯會[斡木河, 阿木河], 즉 지금의 함경북도 會寧에 거주했다고

2) 『조선태종실록』 권7, 20b (태종45/기미).

3) 『조선태종실록』 권8, 2a (태종47/계축).

4) 『滿洲實錄』 1권, 10b-11a. 『만주실록』은 몽케테무르의 11대손인 건륭제 시기에 쓰여진 기록으로 그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대략 400여년 후에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 황실의 위업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내용의 소략함은 차치하고 출판의 시기와 정치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만주실록』에서 청 황실의 먼 조상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선민, 2012, 『『舊滿州檔』에서 『滿洲實錄』까지 :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사총』 77 참고.

설명한다.<sup>5)</sup> 18세기 말 청 황실이 만주족의 선조로 숭상한 인물은 다름 아닌 15세기 초 명과 조선 사이의 변경지역을 이동하면서 교류하던 여러 집단의 수장들 가운데 하나였다.

처음 몽케테무르는 명에 입조하라는 영락제의 사신 高時羅에게 자신의 이름이 聖旨에 분명히 쓰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대신 조선이 보낸 다양한 하사품을 받아들였다. 이듬해 1405년(영락3) 명의 사신 王敎化的이 왔을 때도 몽케테무르는 “우리들이 조선을 섬긴 지 20여 년”임을 강조하며 황제를 알현하러 북경을 방문하라는 명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진인들과 함께 “본래의 뜻을 변치 말고 조선을 우러러 섬기는데 두 마음을 갖지 말자”고 약속하기도 했다.<sup>6)</sup> 그러나 불과 한 달 후 몽케테무르는 영락제의 칙서와 하사품으로 내린 絲緞을 받고 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로 했다. 북경으로 떠나면서 그는 조선 관리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내가 만일 지금 入朝하지 않으면 아하추(於虛出)이 반드시 내 백성을 차지할 것입니다.”<sup>7)</sup> 아하추는 후르하(兀良哈)의 수장으로 영락원년부터 북경을 방문하여 건주위 지휘사에 임명되었고 자신의 딸을 영락제의 세 번째 황후로 만들만큼 명과의 관계가 긴밀했다. 오도리의 수장으로서 인근의 강력한 아하추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부족을 지켜야 하는 몽케테무르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명 황제의 초무에 계속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었다.

명이 몽케테무르의 북경 방문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조선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두만강 일대와 그 지역의 거주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두 국가의 팽창주의적 욕망이 놓여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영토와 인민 지배권에 대한 명과 조선의 인식에는 미묘한 불일치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명의 예부상서 등은 조선이 몽케테무르를 북

5) 吾音會의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구진, 「吾音會의 翰朵里女眞에 對한 研究」 『史叢』 17·18합집, 93~94쪽.

6) 『조선태종실록』 권9, 16a (태종5/4/을유).

7) 『조선태종실록』 권10, 12b (태종5/9/을사).

경에 보내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명의 의도는 “조선과 영토[地面]를 다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강변했다. 명은 “조선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데” 조선은 황실의 친척인 몽케테무르를 붙잡아 보내지 않고 명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었다.<sup>8)</sup> 조선과 영토를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은 이후 영락제의 입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조선의 땅도 또한 짐의 法度 안에 있는데, 짐이 무엇 때문에 다투겠는가?”<sup>9)</sup> 영락제의 이 말은 명의 여진초무가 영토확장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여진을 명의 통치체제 내에서 통제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sup>10)</sup> 영락제의 언급이 비록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수사적인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두만강 일대 여진인에 대한 명의 기본 방침은 영토보다는 사람에 대한 지배와 통제에 목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은 두만강 일대에서 영토 지배와 거주민 복속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보인다. 영토 지배와 인신 지배를 결합시키는 조선의 이러한 인식은 앞서 소개한 태종의 奏文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두만강 일대는 대대로 조선에 속해 있는 토지이며 무엇보다 왕실 선조의 분묘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조선의 영토권은 분명히 입증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태종은 몽케테무르의 북경 방문을 반대하는 근거로 그가 살고 있는 곳이 “小邦의 地界인 공험진 이남으로, 두만강 안쪽에 사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명에게 몽케테무르의 거주지를 오음회보다 훨씬 남쪽인 종성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가 조선의 영토에 살고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sup>11)</sup> 태종의 이러한 언급은 천하의 모든 땅이 황제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명 황실과 달리 조선은 변경의 영토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굳이 입증하고 또한 애써 획득해야 했음을 보여준다. 천하를 다스

8) 『조선태종실록』 권10, 14b (태종59/경술).

9) 『조선태종실록』 권35, 45a (태종18/5/계축).

10)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177~178쪽. 박원호는 영락제의 이러한 구체적인 언급 외에도 명이 몽케테무르의 북경 방문을 요구하는 근거로 그가 황후의 인척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 주목한다. 이는 명이 인척 관계, 즉 사람에 대한 지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조선태종실록』 권10, (태종5/6/임자); 박원호, 2002, 앞의 책, 177~178쪽.

리는 명의 황제는 토지가 아닌 사람의 복속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국을 다스리는 조선의 국왕은 사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배권도 아울러 공인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영토권과 인민 지배권에 대한 명과 조선의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광활한 변경지역과 이곳을 활동무대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여러 부족집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의 정치적 영향력이 요동너머까지 완전하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여진과 몽골집단이 모호한 변경지역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몽케테무르의 이력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여러 여진세력들은 명말에 이르기까지 단일하고 통일적인 집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계속 옮겨가며 주변 세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혼용했다. 여진인들은 명과 조선, 그리고 몽골뿐만 아니라 북방의 다양한 소수민족집단과 정치적·문화적·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스스로 변화해갔다. 명과 조선의 기록에 보이는 몽케테무르는 근거지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명에 복속하고 때로 조선에 접근해야 하는 가난한 부락의 수장이지만, 동시에 그는 명과 조선에 협력과 대결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유지했던 탁월한 외교가이기도 했다. 명, 조선, 몽골 등 주변세력과 교류하고 왕래하며 만주 일대를 전전했던 몽케테무르의 이력과 오랫동안 접촉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여진-만주족의 역사야말로 동북아시아의 여러 세력이 착종하며 빚어낸 변경사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몽케테무르가 명과 조선 사이에서 이주를 반복했던 땅,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나 누르하치가 명과 조선을 제압하고 흥기한 곳은 현재 중국과 한국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동아시아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민족 중심의 역사서술이 발전하면서 중국과 한국 모두 이 지역의 역사를 자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20세기 초 일본과 러시아가 지배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 지역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은 동

아시아 “근대국가들의 모순이 집적된 곳”이었고, “각국의 변경이 된 ‘만주’의 역사를 검토할 때 먼저 근대사가 우선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sup>12)</sup> 본고는 몽케테무르와 이후 누르하치를 포함한 여진-만주족과 조선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기존의 한중관계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진-만주와 조선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체로 중국의 전통적인 화이관과 조공질서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관계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학계의 여진사 연구가 대체로 여진의 유흥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에 주목하기보다 이들을 하나의 통일적이고 고정적인 집단으로 전제하고 일정한 역사적 단계를 따라 “발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기존의 한중관계사의 국가중심적이고 본질주의적 틀을 대신하여 변경사적 관점으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를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만주와 조선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시기적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를 보다 새롭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일국사적 관점

조선시대 여진관계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무수히 많다.<sup>13)</sup> 이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가 조선이 어떻게 여진을 “정벌”하고 4군과 6진을 “개척”했는지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관점의 주체는 명확히 조선, 특히 조선왕실이고 여진은 복속과 교화의 대상으로 설명된다. 여진의 역사에서 조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학계의 전형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잘 드러난

12) 이성시(李成市), 2004, 「동북아시아 변경의 역사-발해사의 배타적 점유를 둘러싸고」,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후머니스트, 135쪽, 141~142쪽.

13) 조선시대 여진사 연구 목록은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 중세, 고구려연구재단;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경인문화사) 참고.

다. “명대 만주 지방에는 흑룡강 유역의 야인 여진, 송화강 유역의 해서 여진, 요동의 동부 즉 압록강·두만강 일대의 건주 여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소수였던 건주 여진, 특히 오음회 출신의 韓朶里족이 만주족을 통일하여 청제국을 세우고 중국 본토를 석권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알타리족이 다른 부족보다 먼저 남하하여 조선의 북변 오음회에서 조선의 선진 문물제도를 섭취하고 또 명과 조선의 강력한 세력 사이에 끼어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을까?”<sup>14)</sup> 한편 북방 여진에 대한 조선의 동화주의·팽창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된다. “태조 이성계의 개국에 여진의 협조가 컸던 까닭으로 태조가 등극한 후에 조선에서도 이들을 동화시켜 우리 민족화하려고 하였고 여진도 진심으로 복속하였다. 따라서 태조의 재위 기간에는 동북면에 여진의 소란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힘이 두만강이남 지역은 물론 이북지역의 오늘날 소위 간도지방이라 불리는 지역까지 두루 미쳤다. (중략) 그 결과 文武의 정치가 이때부터 시행되어 동북면 천리의 땅이 모두 우리의 판도에 들어오게 되어 비로소 두만강으로서 국경을 삼게 되었다. 태조 때에는 조선의 대여진 관계가 꼭 순탄하였으며 태조가 좀 더 오래 집권했다라면 조선의 세력이 두만강 이북까지 더 확대되었으리라 생각된다.”<sup>15)</sup>

여기에서 조선과 여진의 관계사는 조선의 ‘북방개척’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세종이 건주위의 이만주를 공격하고 뒤이어 4군을 설치한 것은 압록강 일대를 안전하게 장악하기 위한 방도였고, 몽케테무르의 사후 알목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6진을 설치한 것은 두만강까지 진출하여 “현실적인 국경선”을 설정한 것으로 설명된다. 세조 5년에 이르러 4군이 폐지된 것 역시 “이 지역의 경제적 이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일 뿐, 여전히 조선의 군사지역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영유권의 포기는 아니었으며 전진을 위한 구실을 마련하고자 단행한 것”으로 여겨진다.<sup>16)</sup>

14) 김구진, 1973, 『吾音會의 韓朶里女眞에 對한 研究』 『사총』 17·18합집, 90쪽.

15) 위의 논문, 105~106쪽.

여진을 조선의 정벌과 개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또 다른 특징은 명과 조선, 중원과 한반도의 대립구도 속에서 여진의 동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몽케테무르를 비롯한 여진인들의 역사는 철저하게 명과 조선의 두 국가 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설명된다. 여진은 조선의 정벌의 대상이자 명의 招撫, 즉 세력 확대의 대상이었다. 여진을 명과 조선의 팽창과 복속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여진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명의 영향 하에서 “중국화[漢化]”하거나 조선의 세력권에서 “조선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한국학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진의 “조선화”이다. 조선은 여진이 명의 회유에 흔들리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명 실상부한 조선의 藩屏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노역과 부세를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교화하여 “문화적 영역에서도 조선화”를 시도했다고 묘사된다. “야인을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해” 조선인과의 혼인을 권장하고 의식과 복식에서도 조선의 방식을 따르게 했으며 유교적인 풍속을 적극 권장했으며,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훈민정음을 보급한 것도 “우리 영역 안에 거주하던 중국인이나 야인의 문자생활을 바꾸는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여진이 언어, 의식에서부터 교육, 신앙, 의료 면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문화에 익숙해져갔으며 (이로써) 조선이 주권이 행사되고 있었다”는 평가로 나아가는 것이다.<sup>17)</sup>

이처럼 명과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오도리의 몽케테무르, 울랑합의 아하추와 손자 이만주, 여러 울적합 부족의 움직임과 상호 관계는 모두 명과 조선의 관할권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들에게는 명에 복속하거나 조선에 투항하거나 양자택일의 선택 외에는 없었다. 여진은 복속과 교화의 대상이며 이들의 활동은 종속 변수일 뿐 명과 조선의 대립구도 속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은 없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여진부족이 바라는 바는 명과 조선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것 보다 양쪽에 모두 入貢함으로써 생활필수

16) 한훈표, 2005, 「朝鮮前期 北方開拓과 領土意識」, 『韓國史研究』 129, 77~78쪽.

17) 위의 논문, 86, 89쪽.

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최대한으로 획득하는 것”이었고,<sup>18)</sup> 이것이야말로 당시 명과 조선 사이의 변경에 거주하는 여러 여진 부족이 일관되게 추구한 정책이자 생존방식이었다. 이것은 또한 16세기 말 누르하치가 명과 조선에 대해 취했던 태도이기도 했다.

한성주의 연구 역시 조선의 4군과 6진의 설치 및 여진인에 대한 관직 하사에 적극적인 북방경영의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1423년(세종5)부터 1437년(세종19)까지 조선은 압록강 인근의 건주위 이만주 세력을 공격하고 4군을 설치했으며, 몽케테무르 사후 세력이 약화된 두만강 일대의 오도리 부를 겨냥하여 1434년(세종16)부터 1449년(세종31)까지 순차적으로 6진을 설치했다. 한성주는 이에 대해 조선은 “북방의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정벌을 위시한 강은양면의 기미책을 실시하여 국경 지방의 소요를 억제하는 한편 4군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행정권이 미치는 실질적인 국경선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한다.<sup>19)</sup> 그러나 한성주는 동시에 여진이 명과 조선 어느 쪽에도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여진 수장에게 관직을 하사하는 조선의 수직정책은 명이 여진 衛所를 설치한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여진 위소는 명의 행정구역으로 이들을 편입한 것이 아니라 여진의 부족장들을 위소의 관직에 임명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런 점에서 “조선의 여진에 대한 수직정책은 명의 위소설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진은 조선과 명 어느 쪽에도 완전히 복속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여진이 명과 조선에 兩屬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여진인들이 조선과 명에서 받은 관직에만 주목한 결과이며, 영토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상 조선과 명 어느 한쪽으로는 종속적 성격을 논할 부분도, 양속적 성격을 논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지적한다.<sup>20)</sup> 4군과 6진의 설치를 조선의 영토적 팽창의 결과로 설명하는 기존 학설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명이나 조선의 영토 주권이 미

18) 박원호, 2002, 앞의 책, 190~191쪽.

19) 한성주, 2011, 앞의 책, 118쪽.

20) 위의 책, 119~120, 129, 152쪽.

치지 않는 변경의 세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성주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인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압록강 유역은 명과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진 부락에게 조선이 세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압록강 일대에 대한 조선의 제한적 영향력은 세종이 설치한 4군을 그의 아들 세조대에 철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두만강 유역은 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조선 왕실의 발상지[祖宗舊地]라는 강력한 요소가 작용했다. 또한 압록강 너머의 건주위에 비해 두만강 일대의 여진부락이 상대적으로 분산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6진을 설치하여 이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성주의 이러한 주장은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인들 사이에서 명의 관직을 가진 자보다 조선의 관직을 가진 자가 4배가량 많았다는 통계적 사실에 근거한다.<sup>21)</sup>

조선이 두만강 일대의 여진인들에 관직을 하사하고 조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을 조선의 변리, 즉 방어막으로 삼아 변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은 알목하의 몽케테무르를 “동북면의 藩籬”로 여기고 있었고 세종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sup>22)</sup> 세종이 6진을 설치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변경의 방어를 위한 변리의 구축이었다. 6진 가운데 부녕을 제외한 두만강 일대의 다섯 개 진(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인근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은 “城底野人”으로 불렸다.<sup>23)</sup> 이후 藩籬가 점차 부락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은 “藩胡” 혹은 “번호 부락”으로 불리게 되었

21) 위의 책, 7, 82~83쪽.

22) “알목하는 원래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던 땅이다. 혹 몽케테무르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다른 강적이 알목하에 와서 살게 되면 우리나라의 변경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곳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寧北鎭을 알목하로 옮기고 慶源府를 蘇多老로 옮겨서 옛 영토를 회복하고 조종의 뜻을 잇고자 한다. (중략) 만약 祖宗이 변리를 설치하였다면 자손된 자가 이를 따라서 보충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세종실록』 권62, 17a (세종15/11/무술).

23) “성저야인은 대대로 우리 땅에 살고 우리의 변리가 되었으므로 국가에서 항상 불려서 무마하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조정에 오면 입히고 먹였다. 또한 관직을 주고 녹봉을 넉넉히 주기에 이르렀다.” 『연산군일기』 권46, 18a (연산군 8/10/정사).

다. 선조대에 이르러 藩胡는 변방 가까이에서 살면서 조선과 무역하고 공물을 바치면서 조선에 복속하지 않은 “深處胡”가 침입하려 할 경우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sup>24)</sup> 다시 말해 조선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오도리나 우랑하이는 번호에 해당했고 멀리 북방에 거주하는 우디개(兀狄哈)는 심처호였던 것이다.<sup>25)</sup> 조선은 16세기 말에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의 흥기와 여진부락 간의 경쟁, 그에 따른 조선 변방의 혼란을 “변방의 방어가 차츰 소홀해져 藩胡가 점차 강성해지면서 藩胡가 앞장서서 난을 일으키고 深處胡를 이끌고 침범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다함은 이러한 여진 번호를 조선왕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동시에 여진 번호에 대한 한국학계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조선은 조선의 통치영역 밖에 있는 여진 부락에게 京差官을 파견하면서 신하의 예로 맞이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조선은 자신이 사대하는 명에 대해 행하던 의례를 야인에게 강요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야인의 사대를 공식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26)</sup> 또한 『용비어천가』와 『조선태조실록』이 여진 추장 이두란의 이성계에 대한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역시 조선과 야인의 관계를 “단순히 힘에 바탕을 둔 臣屬관계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략) 조선을 정점으로 하는 보다 작은 유교적 명분질서의 틀 속에서 조선에 대한 야인의 事大”를 드러내기 위한 서술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명이 자신에 사대를 종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은 야인과 대마도에게 자신을 향한 사대를 종용하고 영속화했다”는 것이다. 야인을 조선의 신하로 규정하는 작업의 최종 단계는 다름 아닌 “야인은 조

24) “北道の 胡人으로서 (두만강 너머 邊堡 가까이에서 살면서 무역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을 藩胡라 한다. (백두)산 북쪽의 여러 야인들 가운데 아직 복속해오지 않은 자들을 深處胡라 하는데, 이들 역시 때때로 변방에서 집대를 받기도 했다. 심처호가 변방을 침입하려 하면 번호가 즉시 보고하고 이들을 막거나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 祖宗이 번호를 후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선조수정실록』 권17, 1b (선조16/2/갑신).

25) 한성주, 2011, 앞의 책, 203~204쪽.

26)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인식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東方學志』 141, 236쪽.

선의 변리·변병이라는 인식의 보편화”였다.<sup>27)</sup> 앞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여진을 조선의 변리로 보는 조선시대 사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성주와 마찬가지로 정다함 역시 조선시대 여진은 중층적이고 변경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조선이 명에 사대하는 신하이면서도 같은 명의 신하인 여진을 자신의 변리나 변병으로 파악한 것, 또한 여진과 대마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각각 명과 막부에 신속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에도 신속한 것, 그리고 언제든 그러한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중층적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sup>28)</sup> 이와 같이 중층적이고 모호한 특성을 지닌 15~16세기 동아시아의 변경에 거주하던 여진의 역사성은 20세기 근대 국민국가와 함께 등장한 단선적이고 일국사적인 역사관에 의해 그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했다. 정다함의 분석에 따르면 해방 이후 형성된 ‘한국사’에서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는 “조선과 명의 이른바 ‘사대’ 관계를 ‘한국사’의 입장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왕조와 외부세력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의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관계’를 일국사적 시각에서 영토화시키게 되었다.” 한국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외관계사, 한중관계사, 한일관계사 등의 용어는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면화”시켰다. 그러나 여진이 거주하고 조선과 접촉했던 함경도는 “근대 국민국가의 시각으로 영토화해서 파악하기 힘든 요소가 많은 열려있는 변경지역”이었으며 “한국사가 영토화해 온 ‘조선적’인 정체성과 비교할 때 매우 이질적인 지역”이었다.<sup>29)</sup> 다시 말

27) 위의 논문, 251~253쪽.

28) 위의 논문, 256쪽.

29) 정다함, 2010, 「‘한국사’ 상의 조선시대상」 『사이間SAI』 8, 43~49쪽. 정다함은 또한 조선의 대야인 정책에 대한 한국학계의 민족주의적 위선을 비판한다. “물리적 역학관계보다는 문화적 우월감에 기반하여 조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조선은 그들에게 문명을 전파해주는 대신 평화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교린’ 정책을 견지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야인에 대한 조선의 교린정책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각은 조선이 야인과 대마도에 행한 군

해 한국을 주체로 파악하는 한국학계의 기존 관점으로는 여진의 변경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 3. 만주중심주의

여진-만주족과 만주지역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이 유럽의 근대 학문체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특유의 동양사를 발전시켰고 이후 조선과 만주에 대한 연구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30)</sup> 만주와 한반도, 나아가 몽고 연구를 통해 일본의 동양사가 서양의 동양학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일본학계의 기대와 조선, 러시아를 이어 중국을 상대로 계속 전선을 확대하며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구하는 국가의 목표가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이른바 “만선사관”이었다. 20세기 초 일본의 청대사 연구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함께 발전했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학문 영역에서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 또한 이들의 만선사관이 만주와 한반도의 밀접한 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배후에는 만주와 조선이 중원과 맺어온 오랜 역사적 관계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만주와 조선에 대한 중원의 영향력을 저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원과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적 특징을 선진적인 농경 문명과 후진적인 유목·채집 문화로 본질화시키고, 이들 사이의 상호 접촉에 따른 문화적 변용과

---

사적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대신 조선의 문명이 야인의 문명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다함, 2008, 앞의 논문, 237쪽.

30) 일본 동양학의 형성과 만주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는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1983, 이기동 역,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 스테판 다나카, 2004,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김선민, 2012,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明清史研究』 38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학계의 여진·만주 연구성과는 스기야마 키오히코(杉山清彦), 2008, 『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 『東洋文化研究』 10; 河内良弘, 1992, 앞의 책, 744~750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혼종성 보다는 만주와 조선에 대한 중화 문명의 일방적인 전파와 학습의 구도로 설명하는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만선사관이 강조하는 만주와 조선 일체론은 한국사 연구에서 흔히 정체론과 타율성론으로 나아간다는 점 때문에 1945년 이후 한국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학계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 일본학계의 여진·청사 연구에서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만선사관이 남긴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1)</sup>

그러나 여진-만주와 조선의 관계를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했다는 측면에서 일본학계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여진-만주족과 조선 관계의 동아시아적 맥락에 주목하는 일본학계의 초경계적 관점과 실증적 연구성과는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의도와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또한 여진-만주족과 조선 관계에 대한 한국학계의 일국사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과도 관련된다. 한국의 독자적 역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한국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는 흔히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에만 주목하고 여진의 동향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접근한 경우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중국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는 중원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이 여진-만주 및 조선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강조하고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학계와 중국학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국사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데 일본학계의 여진-만주족 연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본 만선사관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31) 만주지역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일본학계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1945년 이후 일본의 청대·만주족 연구가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분석보다는 만주인이나 만문자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스기야마 키오히코의 지적에서도 확인된다. 杉山清彦, 2008, 앞의 논문, 354쪽. 구체적인 공간으로서의 변경지역이 아닌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민족 혹은 언어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연구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나바는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를 분석할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이나 여진의 활동을 구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만선관계, 혹은 한중관계는 만주 전체를 시야에 넣고 한반도와 중원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15세기에 조선이 여진의 군장에게 직책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이나바는 이를 조선의 주권이 여진에게 직접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한다. 조선의 여진에 대한 직책 하사는 명이 여진을 포함한 주변 세력에게 誥命을 내리고 회유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며 이것은 곧 조선이 여진을 자신의 번속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32)</sup> 이나바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 여진이 거주하던 조선 변경은 하나의 단일한 주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명, 조선, 여진 등 복수의 정치세력이 공존하는 변경지역이었으며, 이곳에서의 주권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여진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명과 조선의 영향력이 동시에 미치는 곳이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나바의 만선관계는 일종의 변경사적 관점을 띠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나바는 누르하치의 흥기 역시 단순히 중원의 명과 한반도의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누르하치의 성장에는 길림지역의 울라를 병합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건주여진과 울라의 결전이 다음 아닌 조선의 두만강 변경인 鐘城의 門巖(烏碣巖)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누르하치는 이 전투로 두만강 인근의 훈춘까지 세력권을 확장하고 이 지역의 인민을 자신이 거주하는 흥경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명군과 대적할 수 있었다. 또한 두만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조선은 일찍부터 누르하치의 등장에 따른 정세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33)</sup>

만주지역 전체를 시야에 넣고 한중관계의 전개를 파악하는 이나바의 시

32)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976,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國書刊行會), 27~28쪽.

33) 위의 책, 112쪽.

각은 사르후 전투를 다양한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1618년 조선이 참전한 사르후 전투를 분석하면서 당시 명이 건주여진의 남쪽에 있는 조선과 북쪽의 여허를 “順夷”로 여기고 이들을 동시에 건주여진에 대항하게 했음을 강조한다. 명은 전통적인 以夷制夷의 입장에서 여진과 조선을 서로 견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허의 긴타이시와 부잔타이를 통해서도 건주 여진을 압박했던 것이다.<sup>34)</sup> 사르후 전투는 단순히 명과 조선이 후금을 대상으로 요동 변경에서 벌인 전투가 아니라 중원과 한반도와 만주 전역이 개입한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후금-청의 동향을 단순히 남쪽의 조선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여허와 올라와의 관계 및 중원의 명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나바의 만선관계, 혹은 한중관계에서는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긴밀한 관계와 이들이 거주하는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상호 접촉의 양상이 적극적으로 부각된다. 만주 변경이라는 보다 넓은 배경 속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조선의 변경을 이해하는 이나바의 시각은 새로운 한중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학계의 여진사 연구의 전통은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나바와 가와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나바를 비롯한 만선사관의 학자들이 중원 세력을 축소 평가한 것에 비해 가와치는 명 황제의 절대적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서술의 주체는 여진이지만 이들의 활동, 나아가 여진과 조선의 관계는 철저하게 명을 종주국으로 하는 위계적 조공질서에 입각하고 있었음이 강조된다. 가와치에 따르면 명 영락제가 두만강 이남 함길도의 여진 대부분을 초무하려 한 것은 “이 곳이 원래 원의 영토였지 고려의 영토는 아니었으며 원의 유산을 계승한 명이 이 지역의 여진을 초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만강 이남 “열 곳의 여진(十處人員)”을 자신들의 관할로 인정해 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영락제가 수용한 것은 “명이 耕牛를 대가로 여진인의 고향을 조선에 賣渡

34) 위의 책, 127~130쪽.

한 것”이었다. 또한 명은 두만강 일대에 대한 지리지식이 없었고 한인이 거주하지 않는 먼 곳도 왕토로 여겼기 때문에 “十處人員 문제를 귀속과 관련된 일로 여기지 않았다.” 명이 복속하려고 했던 두만강 이남은 “모두 여진의 고향이었고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望鄉民이 되었다.” 결국 “명나라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여진인의 조상 대대로의 토지가 타국에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었다.<sup>35)</sup> 여진의 거주지와 조선의 영토는 분리된 것이었고 이들의 영역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명 황제였다는 것이다.

가와치가 당시 여진의 거주지와 조선의 영토가 명확히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점은 여진을 조선과 대등한 정치세력으로 여기지 않는 한국학계의 일반적인 서술과 분명히 차별된다. 명 중심의 조공질서 안에서 여진과 조선의 관계는 훨씬 대등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가와치에 따르면 몽케테무르의 오음회에 건주위가 설치된 것은 여진이 조선과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된 것이며, 그가 건주위 지휘가 된 것은 “조선과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이 몽케테무르를 오도리만호나 경원만호가 아닌 건주위지위로 부른 것은 명을 종주국으로 하는 외국인으로 그를 대우한 것이며, 몽케테무르의 북경 방문 후 조선이 경원개시를 폐쇄한 것은 여진의 배반에 대한 조선의 복수가 아니라 “이제 외국이 된 여진과 사적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명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몽케테무르가 조선 내의 친인척을 불러들이려 한 것 역시 조선을 외국으로 여겨 “內外를 구획하고자 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 한편 조선이 상인들의 마천령 이북으로의 진입을 금지한 것도 여진의 세력권과 조선의 세력권이 마천령을 중심으로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조선에게는 (중략) 여진의 거주구역을 외국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sup>36)</sup> 이처럼 가와치는 명의 건주위 설치를 여진 세력이 조선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두만강 일

35)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同朋舎), 40~45쪽.

36) 위의 책, 51~53쪽.

대 여진이 대등한 세력을 구축하거나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명과 조선 사이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했다고 평가하는 한국학계의 인식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와치는 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상호 독립적이며 경쟁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양자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한다. 두만강 일대는 두 집단이 서로 접촉하고 융합하며 교류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배타적 범위를 설정하고 상대를 자신과 분리하는 곳으로 설명된다. 여진과 조선의 관계에서 명의 역할 역시 중원의 황제이자 천하의 천자로 고정화되며, 한인의 세계를 여진의 세계와 분리시키고 조선의 영역을 여진의 영역과 분리하는 결정권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여진이 활동했던 요동과 조선의 변경지역은 특정 세력이 특정 영역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던 공간이 아니었다. 요동에서 한인과 여진과 몽골은 끊임없이 접촉하며 혼거했고, 두만강 일대에서 여진과 조선인 역시 통혼하며 뒤섞였기 때문에 양자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경계를 구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요동과 조선 변경에 명의 종주권이 미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명 황제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었고 여진과 조선의 협상 노력에 의해 흔히 뒤바뀌기도 했다. 여진의 거주지는 이웃하는 명이나 조선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그들의 활동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그들의 경계는 중첩되고 모호했다. 여진은 명확한 독립국가라기보다는 명과 조선 사이의 변경민에 가까웠다.

가와치와 비슷하게 중원-만주지역-조선의 정치세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여진-조선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각은 개리 레디아드(Gary Ledyard)에서도 발견된다. 레디아드는 “중원, 만주(지역), 한반도의 국가들 사이의 삼각관계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특별한 중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 사이의 삼각관계의 변화를 시기별로 음과 양의 움직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남방의 중원세력이 북방의 변경민을 향해 팽창하는 것은 陽의 시기에 해당하고 반대로 북방의 변경민이 남방의 중원으로 팽창하

는 것은 陰의 시기에 해당한다. 한편 서부 만주는 현재의 내몽고 자치구에 해당하고 동부 만주는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즉 송화강, 흑룡강, 압록강 사이의 지역과 현재 소련의 연해주를 포함하는데, 동부 만주에는 말갈, 여진, 만주를 포함하는 퉁구스 계열의 민족이 주로 거주하였고 한국인은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에서 거주했다. 이와 관련하여 레디아드는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한국인’과 ‘퉁구스인’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었으며, 두 집단이 서로 섞이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강조한다.<sup>37)</sup>

레디아드는 만주지역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그에 따른 중원과의 관계 변화가 언제나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한다. 14세기 중반 원을 물리치고 중원을 지배하게 된 명은 자신이 원의 모든 영토를 승계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고려의 동북변경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했다. 명의 이러한 요구가 고려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어 요동 출병이 시도되었다가 결국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무산된 일련의 사건은 중국과 조선 관계에서 만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만주(지역)가 경쟁의 대상이 되는 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안정될 수 없으며 한국의 내부적 평화도 유지될 수 없었다.” 14세기 중반 만주를 둘러싼 명과 고려-조선의 갈등은 16세기 말 누르하치 세력의 등장으로 다시 재연되었다. 레디아드에 따르면 “만주와 중원의 세력 다툼이 신속하게 정리되었다면 조선이 그렇게 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644년까지 일련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sup>38)</sup>

중원-만주-한반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레디아드는 이 나바나 가와치와 기본적인 시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만주지역에 근거한 세력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특히 만

37) Gary Ledyard,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313~315.

38) 위의 논문, pp.327~329.

주지역을 둘러싼 여러 집단의 관계를 한쪽의 팽창에 따른 다른 쪽의 수축, 혹은 음과 양의 움직임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공통적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만주지역은 여진-만주족·조선·명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공간이었다. 이들 사이의 교류와 접촉에 따른 경계의 모호함, 또는 혼거와 통혼에 따른 혼종성과 뒤섞임 보다는 명확한 구분과 경계가 만주지역을 둘러싼 중원과 조선의 관계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명확한 경계선이 아닌 모호한 변경을 둘러싸고 접촉하고 융합하는 관계로 파악할 경우, 만주지역과 조선의 관계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변동이 조선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들의 관계가 반드시 대립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서로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모호하게 뒤섞이고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신청사와 변경사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는 몽케테무르의 6대손을 자칭한 누르하치가 15세기 말에 이르러 요동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후에 청의 태조로 추증되었지만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그 역시 명과 조선에 양속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다. 선조34년(1601) 누르하치는 이미 명에서 龍虎將軍의 직책을 받은 상태였으나 자신의 부장 忙刺哈를 조선의 변경인 滿浦에 보내어 올라의 胡人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직첩을 받으러 서울에 오겠다고 자청했다. 당시 조선은 누르하치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天朝에서 이미 龍虎將軍의 직첩을 받았는데 조선이 감히 직첩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sup>39)</sup> 이 때는 누르하치가 분산된 여러 여진 부락을 아직 통일하

39) 『조선선조실록』 권142, 13a(선조34/10/정해). 누르하치와 조선과의 초기 교섭과정에 대해

기 전이었고 건주여진은 홀룬 4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원 북쪽에는 홀룬 4부 가운데 여허와 하다가, 輝發河 일대에는 호이파가, 그리고 길림 일대에는 올라가 흩어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올라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忽剌溫이라 불리면서 조선으로부터 직첩을 받고 물자를 교역하고 있었다. 몽케 테무르가 사망하고 건주여진이 회령에서 요동으로 이주하면서 두만강 일대에서 조선과의 교섭은 올라가 독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올라와 경쟁하던 누르하치는 조선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빼앗기 위해 기꺼이 조선에 입조하고 조선의 직첩을 받고자 했다.

명과 조선에 대한 兩屬을 자칭하던 누르하치는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 만력35년(1607)에 이르러 누르하치는 東海의 위지부를 공격하여 복속시키고 이 지역을 통제하던 올라의 부잔타이 세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sup>40)</sup>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에서 가까운 중성 근처의 門巖(烏礪巖)에서 부잔타이를 격파하고 올라에 일격을 가함으로써 누르하치와 조선의 보다 밀접한 접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41)</sup> 두만강 일대로 세력을 확장한 누르하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와르카(瓦爾喀) 部民을 휘하로 복속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변경을 따라 거주하는 와르카 부민 역시 모두 나의 사람들”임을 주장했다. 그는 명에게 글을 보내어 조선이 와르카 부민을 찾아내 자신에게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인 만력제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와르카 부민 1,000호를 찾아 건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sup>42)</sup> 누르하치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조선의 변경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조선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sup>43)</sup>

서는 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31~40쪽 참조.

40) 『만주실록』 권3, 141上; 『청태조실록』 권3, 51上. 河內良弘에 따르면 『滿洲實錄』의 東海의 위지부는 “조선 동북 경계지역의 오랑캐(兀良哈)부”를 가리킨다. 河內良弘, 1992, 앞의 책, 587~588쪽.

41) 문암 전투에 대한 조선의 보고와 관찰은 『조선광해군일기』 권6, 14b (광해군 1/3/10 신묘). 문암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는 稻葉岩吉, 1976, 앞의 책, 51~58쪽.

42)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1955, 『滿文老檔』 太祖 1, 東洋文庫, 9~10쪽.

43) “奴酋[누르하치]의 병력은 忽賊[올라]에 비해 약간 더 강성했었는데 문암에서 한 차례 승리한 후 그 세력이 크게 성하여 여러 부락 중에 으뜸이 되었고 원근의 부락이 모두 복속

누르하치가 조선과 직접 접촉을 시도한 것은 조선 변경에서 올라를 격파하기 몇 해 전으로, 그가 후란하다의 남쪽 피얼라에서 허투알라로 이주할 무렵이었다. 만력33년(1605) 11월 11일자로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그는 “建州等處地方國王 修”이라 하여 스스로 국왕이라 칭했다.<sup>44)</sup> 국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주지방의 국왕은 조선과 논의하기 위해 滿浦官鎮 節度使에게 알린다. 올라의 부잔타이와 조선 너희 두 나라가 강화한 사정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어떠한가? 나는 조선이 올라의 부잔타이 때문에 심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부잔타이는 내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저버렸다. 고려지방은 인삼이 많다고 하여 삼을 캐는 자들이 말을 타고 산을 돌아다닌다. 인삼을 캐러 간 40명의 우리 사람[夷人]을 모두 죽이거나 그들을 묶어 나에게 보내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만약 지금 너희 고려인이 강을 건너오면 내가 잡아서 죽일 것이다. 우리 사람들[我夷人]이 강을 건너가면 너희 고려가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일이 두 나라에게 똑갈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면 너희는 묶어 나에게 보내라, 내가 처형할 것이다. 만약 죽이지 않으면 나의 잘못이다.”<sup>45)</sup>

누르하치의 국서에 대한 조선의 답서는 “朝鮮國滿浦鎮僉節制使 某”가 건주위의 글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조선은 건주위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했다. “지금 本衛[건주위]가 보낸 문서를 보고 사정을 모두 알았다. 本衛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다. 우리 나라와 本衛

---

되었습니다. (중략)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마땅히 누르하치에게 마음을 쓰야할 것입니다.” 『조선광해군일기』 권6, 14b (광해군1/3/10 신묘).

44) 이 국서는 누르하치와 조선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왕래한 기록이었다. 김중원은 여기에서 조선의 국왕에 대한 인식과 후금에 대한 외교방향의 변화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국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중원, 1999, 앞의 책, 36~37쪽.

45) 『事大文軌』 권46, 29a-30b (萬曆 33/11/11). 이 문서는 한명기·이상훈 공편, 2002, 『壬辰倭亂 史料叢書 7: 對明外交』 (國立晉州博物館), 389~392쪽에 재수록되어 있다. 누르하치의 국서는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한문 문법이나 표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당시 누르하치에 봉사하던 漢人이 아직 많지 않았고 그들의 학문 수준이 일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는 예전부터 평화를 유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각자 경계[地界]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나 해서의 부잔타이가 이유없이 병사를 움직여 우리의 邊堡를 침략하고 우리의 邊民을 공격하고, 또 그치지 않고 다시 병사를 움직여 싸우려 한다. 그가 또한 ‘건주위가 강성함을 믿고 있다’고 말하니 우리는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本衛와 海西衛 사이의 곡절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북변에는 여러 防守處가 있고 군비가 갖추어져 있으니 부잔타이가 온다 해도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유없이 갈등을 일으켜 양쪽 변경의 사람들을 죽이기보다 화친하는 것이 훨씬 이로우 것이다. 本衛는 살려준 은혜를 모른다고 하나 그 해서(의 부잔타이) 역시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 일찍이 本衛가 살려준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그것을 잊겠는가? 하물며 本衛의 병사는 그들보다 강력하니 그는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다. 本衛가 성심으로 그를 타이른다면 따르지 않을 리가 없다. 오직 本衛는 거듭 타일러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나라는 本衛의 진심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本衛가 말한 ‘두 나라의 화의’가 매우 좋다. 지금부터 두 변경의 일은 이에 따라 처리하면 편리할 것이다.”<sup>46)</sup>

누르하치의 등장은 명-여진-조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그 결과 이들이 혼거하던 변경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 국서를 보낸 지 10여년이 지난 만력44년(1616) 누르하치는 마침내 金國을 건립하고 2년 후에는 七大恨을 내세워 撫順과 清河를 함락하여 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명이 자신을 토벌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조선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누르하치는 1618년 “명이 나의 祖父를 죽이고 대대로 패악을 저지른 까닭에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조선이 이를 공출이 여겨줄 것을 바란다”는 뜻을 조선에 전했다.<sup>47)</sup> 한편 같은 해 5월에는 만포진에 “조선 국왕은 열어보라(朝鮮國王開拆)”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어

46) 『事大文軌』 권46, 30b-31a (萬曆 33/12); 한명기·이상훈 공편, 2002, 앞의 책, 392~393쪽.

47) 『조선광해군일기』 권44, 6b (광해군10/3/5 갑자).

조선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선은 우리와 신의를 지닌 나라이다. 만약 요동에서 조선에 병사를 요청한다면 會寧, 三水, 滿浦 등지에 있는 우리의 장수들이 한 부대의 병마를 보내어 공격할 것이다. 조선은 우리 장수들과 아무 원한이 없으니 삼가 강역을 지키고 병사를 일으키지 말라.”<sup>48)</sup> 누르하치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결국 명의 요구에 따라 군사를 파병했고 그 결과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했다. 이후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복속시키고 손자 순치제가 북경으로 천도할 때까지 명과 조선, 그리고 후금-청과 조선의 관계는 끊임없이 착종했다.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를 일국사적 시각이 아닌 초국가적인 교류와 접촉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신청사적 관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미국학계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청사에 대해서는 만주족과 그들의 민족적·문화적 특징, 한족과 비한족 집단과의 관계, 청의 내륙아시아적 전통과 유산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활발한 논의와 비평이 전개되어 왔다.<sup>49)</sup> 이 가운데 청을 중국사의 한 왕조로 파악하는 기존의 중화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조공책봉체제라는 하나의 단일한 방식으로 청의 대외관계를 모두 포괄하려는 기존의 학설을 재검토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주족의 청제국과 그 지배질서에 주목하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들은 청 황실이 정치적 혼인관계, 종교적 후원활동, 상업과 외교와 전쟁을 병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접세력을 통제해 왔으며 많은 경우 청의 대외정책은 조공책봉이나 중화중심론과는 무관했음을 지적한다. 청의 대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으로 명의 지배질서에 귀속되었던 지역보다 내륙아시아 등 비한족 집단

48) 『조선광해군일기』 권45, 126b (광해군10/5/29 병진).

49) 신청사에 대한 소개와 비평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파멜라 크로슬리, 2010, 「‘신’ 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리우샤오멍(劉小萌), 2010, 「清朝史中的八旗研究」, 『清史研究』 2010-2; 김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史叢』 74.

과의 관계에서 특히 강조되었다고 여겨진다.<sup>50)</sup>

청대 만주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만주족의 민족적 기원과 특징에 대한 탐색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만주족의 조상인 여진과 조선의 관계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 역시 당연했다.<sup>51)</sup> 신청사적 관점을 공유하는 학자들 가운데 특히 파멜라 크로슬리는 여진-만주족의 역사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여진과 조선의 관계는 때로 우호적이고 때로 적대적이었지만 그 시작은 아주 오래되었음”을 강조한다. 크로슬리는 특히 앞서 소개했던 몽케테무르가 청 황실의 계보와 역사 만들기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한다. 15세기 초 몽케테무르가 오도리 부민을 이끌고 이주한 두만강 남쪽 오모호이 근처 조선의 동북면은 수백년간 여진의 거주지였다. “당시 조선 태조는 조선에 협력하지 않는 여진을 구축하고 압록강 북쪽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한반도의 북쪽으로 조선의 주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한편 명은 여진 부락의 영토적 경계가 모호한 것을 이용하여 압록강 남쪽의 영토에까지 잠재적인 영유권을 주장했다.”<sup>52)</sup> 조선은 군사적인 점령과 농경민의 이주를 통하여 이 지역을 확보했다. 많은 여진인들이 압록강 근처에 설치된 조선의 鎭에 합류했고 조선인의 성씨를 쓰면서 조선과의 교역에 참여했다. 크로슬리에 따르면 18세기 만주족 조상의 지리적 기원을 밝히는 데 요동지역의 문화적 모호성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오도리 부의 몽케테무르와

50) 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다음을 참조. Kwangmin Kim, 2012, “Profit and Protection : Emin Khwaja and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Asia, 1759~1777,”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1 : 3, pp.603~626; Kwangmin Kim, 2008, “Saintly Brokers : Uyghur Muslims, Trade, and the Making of Qing Central Asia, 1864~1814.”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51) 그동안 구미학계의 연구는 주로 명을 비롯한 중원세력과 한족문화가 여진과 만주족에 끼친 영향에 주목해왔고, 여진과 조선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평가해왔다. 예를 들어 청초기 역사의 전문가인 Gertraude Roth Li는 명대 여진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불과 한 페이지에 걸쳐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뿐, 몽케테무르나 건주 여진의 성장 과정에서 조선이 미친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Gertraude Roth Li, 2002, “State Building Before 164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Part One : The Ch'ing Empire to 1800*, edited by Willard J. Peter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4~16.

52) Pamela Kyle Crossley, 1999, *A Translucent Mirror :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76~77.

후르카 부의 아하추와 손자 이만주는 일련의 경쟁과정을 파저강 일대로 이주했고 이들이 모두 건주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파저강은 修佳江으로, 이 일대는 통기야(Tunggiya), 즉 修씨의 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누르하치의 국서에서 보이듯이,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출신과 명과 조선과의 정치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修씨 성을 사용했다.<sup>53)</sup> 크로슬리는 누르하치의 동서나 李成梁의 이씨 등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명말 요동의 문화적 복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설명한다.<sup>54)</sup>

케네스 로빈슨(Kenneth R. Robinson)은 신청사와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명-여진-조선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일국사적 관점이나 목적론적 역사관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로빈슨에 따르면 15~16세기 조선의 동북부는 다문화적인 변경이자 조선인과 여진인이 뒤섞이고 충돌하는 상호 만남의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함경도 일대에는 많은 여진인들이 조선의 국가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었음에 주목하여 그는 이 지역에서 “영토주권과 사법주권이 불일치”했다고 지적한다. 조선이 이곳의 여진인을 조선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진은 조선의 신민(subjects)이자 동시에 외부인(guest)이었다. 이는 또한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조선이 동북지역에서 하나의 단일한 행정 공간을 수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sup>55)</sup> 이와 관련하여 로빈슨은 육진의 설치를 조선 정

53) Crossley, 1999, 앞의 책, pp.78~84. 한편 河內良弘은 누르하치가 修씨 성을 사용한 것은 건주좌위와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허구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滿洲實錄』에 소개된 누르하치의 가계는 몽케테무르(mentemu), 충산(cungšan), 시버오치 피양구(sibeoci fiyangū), 푸만(fuman), 기오창가(giocangga), 탁시(taksi)에서 누르하치로 이어진다. 그런데 몽케테무르의 자손 가운데 푸만이라는 인물은 명의 기록에서 보이지 않으며, 조선의 申忠一의 『建州圖錄』에도 기오창가(修交淸哈), 탁시(托時), 누르하치(奴兒哈赤)은 기록되어 있으나 증조부인 푸만에 대한 언급은 없다. 河內良弘은 푸만을 청초의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추측한다. 누르하치의 가계가 건주좌위의 수장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서 성을 사용함으로써 건주좌위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河內良弘, 1992, 앞의 책, 733~734쪽.

54) Crossley, 1999, 앞의 책, pp.84~88.

55) Kenneth R. Robinson, 2010, “Resistance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Peninsular Northeast During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Sun Joo Kim ed.,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Seattle &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18~19.

부의 권력이 여진의 거주지까지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함경도에는 두 개의 조선, 즉 “영토로서의 조선(a territorial Choson)과 관할지역으로서의 조선(a jurisdictional Choson)이 존재했으며 관할지역으로서의 조선은 영토로서의 조선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함경도에서 조선의 영토권과 관할권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56)</sup>

로빈슨은 특히 동북면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강조한다. 이 지역은 여진인과 조선인이 서로 교역하는 경제적 변경(an economic frontier)이자, 여진인·조선인·한인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적 변경(a linguistic frontier)이었으며, 여진인이 조선국왕과 명황제가 내린 지위에 그들 자신의 지위를 덧붙이는 지위의 변경(a status frontier)이었고, 또한 남쪽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이 농경법을 소개하는 환경적 변경(an environmental frontier)이기도 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초경계적인 변경(transboundary frontier)이기도 했다. 함경도라는 공간은 명의 한인, 여진,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가로질러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문화적·경제적 지대(cultural and economic zones)였다.<sup>57)</sup> 14~16세기의 여진과 조선은 경계가 모호한 변경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맺음말

여진-만주족과 조선 관계를 기존의 한중관계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본고는 변경사적 관점을 제안한다. 변경사적 관점의 핵심은 무엇보다 단선적, 영토중심적, 일국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 윌리엄스(Chris Williams)에 따르면 “근대국가의 단일한 국민

56) 위의 논문, pp.20~21.

57) 위의 논문, pp.33~34.

만들기는 흔히 변경의 거주민들의 역사와 그들의 의식과 충돌을 일으킨다. 민족적·인종적·언어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것이 국민국가 제일의 허구라면, 국경은 언제나 그 허구가 거짓임을 입증한다.”<sup>58)</sup> 또한 경계 연구는 “국민국가의 공간적 차원을 문제삼고,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국민국가의 신화를 문제삼으며, 경계를 가로지르는 민족과 정체성들을 지적하고 ‘경계’의 주체적 정체성들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경계는 국민국가의 주변부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한 국민의 선명한 경계이자 서로 다른 국가와 사회 조직체들이 만나 같든하거나 뒤섞이는 지점들이다. 경계는 차이와 조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 면에서 세계사는 경계 위에서 가장 잘 관측될 수 있다.”<sup>59)</sup>

페카 하말라이넨과 사무엘 트루에트(Pekka Hämäläinen & Samuel Truett)에 따르면 변경사의 목적은 “역사적 공간을 서로 통하게 하고 그 공간 사이를 흐르는 역사적 조류를 밝히는 것이다.” 변경이라는 용어는 무수한 시간과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접촉의 은유(메타포)로 폭넓게 사용되기도 하고, 보다 제한적으로 제국이나 국가의 주변부에 위치한 공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변경사적 관점은 국가와 중앙중심주의가 간과하는 무수한 지점을 포착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요소들, 즉 일국사(national history)의 영역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주체(transnational subjects), 서로 다른 민족의 경계를 왕래하는 다문화적 주체를 부각시킨다. 이 과정에서 “역사란 결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open-ended, multidirectional)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음”이 강조된다. 주체가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순응해가는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변경사적 관점은 역사가 일국사적 서사가 아닌 초국가적 서사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sup>60)</sup>

58) 크리스 윌리엄스(Chris Williams), 2004, 「변경에서 바라보다-근대 서유럽의 국경과 변경」, 임지현 역,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서울: 후머니스트, 60~61쪽.

59) 윌리엄스, 2004, 앞의 논문, 71쪽.

60) Pekka Hämäläinen and Samuel Truett, 2011, “On Borderland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September), pp.346~348.

변경사적 관점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할 것은 변경의 역사성이 변경을 공유하는 집단과 세력의 관계에 따라 시기적으로 계속 달라진다는 점이다. 변경은 근본적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며 따라서 변경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관계가 달라지면 변경의 의미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변경의 의미가 시기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고는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서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다른 시기에 적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sup>61)</sup> 먼저 변경(frontiers)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 혹은 사회집단이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모호한 공간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세력을 상대방에게 침투시키고 확장할 여지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국경(borders)은 인접하는 두 정치세력이 서로의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한 선을 뜻한다. 여기에서 먼저

61) 변경과 관련된 용어들은 연구의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커와 로세쓰(J. Parker and Lars Rodseth)에게 경계(boundary)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어떤 것의 한계를 지칭하며 국경이나 변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국경은 특정한 공간을 지정하는 법적으로 인정된 선으로 하나의 정치적·행정적 단위를 다른 것과 구별한다는 의미를 지닌 반면 변경은 모호하게 정의된 경계로서 선이 아니라 공간(zone)에 해당한다. Bradley J. Parker and Lars Rodseth, 2005, "Introduction :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Frontiers," Bradley J. Parker and Lars Rodseth eds., *Untaming the Frontier in Anthropology, Archaeology, and History*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pp.9~11. 한편 아델만과 애론(Adelman and Aron)에게 변경은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지리적·문화적 국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서 "국경이 없는(borderless) 땅"이다. 이들은 변경과 국경 사이에 국경지대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두 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경계(contested boundaries between colonial domains)"로 정의한다. Jeremy Adelman and Stephen Aron, 1999, "From Borderlands to Borders :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 3 (June), pp.815~816. 또한 마이클 버드와 빌렘 폰 쉰델(Michael Baud & Willem Van Schendel)은 변경을 국가나 문명이 진출하는 "비어있는" 지역으로, 국경은 경계를 나누는 선이 아닌 지역으로 설명한다. 이들 역시 변경이 국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Michiel Baud and Willem van Schendel, 1997, "Toward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 : 2, p. 223. 한편 피터 퍼듀(Peter Perdue)에 따르면 邊疆은 영어의 변경과 국경, 즉 불확실한 시대와 구분된 선이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한다. Peter C. Perdue, 2005, "From Turfan to Taiwan : Trade and War on Two Chinese Frontiers," Bradley J. Parker and Lars Rodseth eds., *Untaming the Frontier in Anthropology, Archaeology, and History*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pp.28~29. 위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김신민, 2010,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114~118쪽 참조.

지적해 둘 것은 국경은 국민국가가 등장하여 주권과 영토인식이 결합하는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근대사회에서는 두 국가 간의 영역이 명확한 국경선으로 구획되는 데 비해 전근대 사회는 변경과 같은 모호한 경계로 나누어 있었던 것이다.<sup>62)</sup>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근대의 국경이 전근대의 변경에서 직접, 그리고 단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경에서 국경으로 변화하기 전에 일종의 전환기이자 중간단계인 국경지대(borderlands)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국경지대는 변경의 성격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지니게 되는 것이다.

17세기 초 청과 조선의 관계에서 우리는 변경이 진화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몽케테무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명의 강력한 종주권 하에서 한족, 여진-만주족, 조선인이 서로 공유하던 만주와 조선의 변경은 주변 세력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전형적인 중간지대였다. 그러나 누르하치가 등장하여 명의 종주권에 대항하고 배타적인 영역권을 주장하면서 이 변경은 명, 후금, 몽골, 그리고 조선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으로 변모해갔다. 특히 후금-청과 조선의 관계가 진화하면서 이들이 공유하던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모호한 변경에서 점차 각자의 영역 범위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이후 만주족이 入關하여 중원의 내지를 지배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변경을 둘러싼 정치관계는 청의 종주권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었다. 청의 권력이 내지와 만주를 넘어 조선에까지 미치고 양국의 정치관계가 조공질서에 입각한 상하관계로 안착되면서 과거 모호하고 불안정했던 변경은 점차 명확하고 안정적인 국경지대로 진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주와 조선의 모호하고 중첩적인 변경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17세기 초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2) 근대 국민국가와 영토인식의 성장에 대한 연구로는 Thongchai Winichakul, 1994,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Bruce L. Batten, 1994, *To the Ends of Japan: Premodern Frontiers, Boundaries, and Interac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그러나 양국의 명확한 경계 설정은 홍타이지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정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희년간까지도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18세기 초 두만강의 수원을 확인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청과 조선 사이에 오고 간 논란은 청이 만주 변경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청과 조선 양국 사이에는 광대한 산과 무수한 지류를 가진 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매우 용이했다. 따라서 국경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인삼과 같은 변경의 자연자원을 채취하려는 청인과 조선인의 범월은 사라질 리가 없었다. 그러나 국경을 명확히 하려는 청의 노력은 조선과의 조공관계에 제약을 받았다. 조선은 청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조공국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공관계가 중시하는 과거의 선례를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계를 모호하게 남겨두는데 성공했고, 종주국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청은 조선의 요구에 따라 국경지대에 대한 강력한 방어와 군사적 통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양국의 국경지대에 깃든 모호함은 이들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는 조공질서가 이러한 모호함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백두산 정계비 설치를 둘러싼 청과 조선의 논란은 또한 청과 조선이 영토와 주권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희제가 백두산 답사를 위해 파견한 관리들에게 내린 유지에 따르면 그가 원하는 것은 양국의 경계 설정이나 청의 영토권 확보가 아니었다. “압록강의 서북은 중국의 땅이다. 압록강의 동남은 조선의 땅이다. (중략) 토문강의 서북은 중국의 땅이고, 동남은 조선의 땅이다. 이 곳은 모두 이미 명백하다. 그러나 압록강과 토문강의 두 강 사이의 지역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중략) 이번 기회에 (백두산의) 끝까지 가보고 상세히 본 후 변경의 경계를 조사한 사항을 상주하라.”<sup>63)</sup> 당시 강희제는 러시아와의 충돌과 뒤이은 경계 설정을 계기로 제국의 판도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로 가시화하고자 했다. 청이 러시아와 네

63) 『淸聖祖實錄』 권246, 6b-7b (康熙50/癸巳).

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서로의 경계 범위를 설정한 것은 만주 변경에 거주하는 부족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에서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조선을 상대로 필요한 것은 청 황제의 권위에 대한 조선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나 설치과정에 대해 강희제나 후대의 황제들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청이 조선과의 국경지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은 매우 달랐다. 종주국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속국이라는 통념과 달리 조선은 강희제의 공동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이 조선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의구심은 물론 중국을 통치할 자격이 없는 만주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지만, 강력한 이웃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중원의 세력에 대해 자국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조선의 노력은 명과의 관계에서부터 드러난 일관된 특징임은 앞서 몽케테무르를 비롯한 여진인의 入朝를 둘러싸고 명과 조선이 주고받은 논란에서도 이미 설명되었다. 반면 명의 영락제나 청의 강희제의 발언은 중원의 세력에게 조선과의 국경문제는 그들의 상대방이 느끼는 것처럼 절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명의 영락제는 국경지대의 영토보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명의 권위에 복속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청의 강희제 역시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간의 영토를 속국과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조선은 국경지대의 영토에 대한 청의 인식과 관심의 정도가 자국과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여 모호한 경계를 방치했고 이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과 조선의 상하우열에 입각한 조공관계가 바로 양국의 국경지대의 모호함을 허용하고 조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에 존재하는 모호함을 허용했던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청의 만주지역에 대한 격리와 봉금정책이었다. 청대 만주변경은 황실의 발상지이자 기인의 육성지로 보호하기 위해 민인의 출입이 금지된 空間

地로 유지되었다. 만주변경에 대해 청조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대한 접근은 청초부터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청은 명의 요동변장을 계승하여 확대 발전시킨 유조변을 통해 조선과의 사이에 경계를 직접 맞대지 않을 수 있는 완충지역을 만들었다. 유조변과 압록강 사이의 공한지는 한족, 만주족, 조선인이 서로 접촉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두만강 너머는 청의 간접지배를 받는 다양한 부족들의 거주지였고 팔기병사들에 의해 민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지역이었다. 때로 발생하는 조선인의 범월사건에 대해 청은 변방을 회유한다는 취지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조선에 위임했고, 조선은 상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조선인의 국경지대 출입을 금지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비워둠으로써 청의 변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러나 조선과의 국경지대를 공한지로 비워두는 청의 이른바 虛邊 정책은 제국의 강력한 권위와 행정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경지대의 공한지는 경작지를 찾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했고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공한지는 곧 경계가 모호해 질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청이 추구하는 만주변경의 허변, 그리고 조선과의 국경지대의 공한지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그 결과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는 다시 경계가 모호한 변경으로 변모했다. 만주족을 위해 만주지역을 비워두려는 청의 변경정책이 결과적으로 조선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조선에 대해 청이 갖고 있던 강력한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조선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강제력도 함께 무너져갔다. 이제 청은 조선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자국의 지배권을 조공관계에 입각한 종주국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근대적인 국제법에 근거한 조약에서 찾아야 했다. 청과 조선 사이에서 전통적인 조공관계가 사라지고 근대적인 외교관계로 대체되면서 양국의 국경지대는 명확한 국경선으로 구획되어야 했다. 그러나 두만강을 경계로 명확한 국경선을 획정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경계가 모호한 변경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국경선을 설정해야 하는 근대 국가의 욕망과 이를 무력화하는 이주민의 물결이 서로 충돌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명과 조선의 변경에서 태어난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는 다시 중화민국과 대한제국의 국경으로, 또한 동아시아의 변경으로 변모를 거듭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 중세, 고구려연구재단
- 김구진, 1973, 『吾音會의 韓朶里女眞에 對한 研究』 『史叢』 17·18합집
- 김선민, 2010,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윤영인 외 지음,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2,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明清史研究』 38
-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연구』, 혜안
- 리우샤오멍(劉小萌), 2010, 「清朝史中的八旗研究」 『清史研究』 2010년 2기
-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1955, 『滿文老檔』 太祖 1, 東京: 東洋文庫
-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 스기야마 키오히코(杉山清彦), 2008, 「大清帝國史研究の現在-日本における概況と展望」 『東洋文化研究』 10
- 스테판 다나카, 2004,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서울: 문화과 지성사
- 크리스 윌리엄스(Chris Williams), 2004, 「변경에서 바라보다-근대 서유럽의 국경과 변경」, 임지현 역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후머니스트
-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976,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國書刊行會
- 이성시(李成市), 2004, 「동북아시아 변경의 역사-발해사의 배타적 점유를 둘러싸고」, 임지현 역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서울: 후머니스트
-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인식의 형성과 敬差官의 倂見」 『東方學志』 141
- 정다함, 2010, 「‘한국사’ 상의 조선시대상」 『사이間SAI』 8
- 파멜라 크로슬리, 2010,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한명기·이상훈 공편, 2002, 『壬辰倭亂 史料叢書 7: 對明外交』, 國立晉州博物館
-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 하타다 다카시(旗田龜), 1983, 이기동 역,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
- 한훈표, 2005, 「朝鮮前期 北方開拓과 領土意識」 『韓國史研究』 129
- Adelman, Jeremy & Stephen Aron, 1999,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 3
- Batten, Bruce L. 1994, *To the Ends of Japan: Premodern Frontiers, Boundaries, and Interactions*,

-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aud, Michiel & Willem van Schendel, 1997, "Toward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 : 2
- Crossley, Pamela Kyle, 1999, *A Translucent Mirror :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ämäläinen, Pekka & Samuel Truett, 2011, "On Borderland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September 2011)
- Ledyard, Gary,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m, Kwangmin, 2012. "Profit and Protection : Emin Khwaja and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Asia, 1759-1777,"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1 : 3
- Kim, Kwangmin, 2008. "Saintly Brokers : Uyghur Muslims, Trade, and the Making of Qing Central Asia, 1864-1814."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arker, Bradley J. & Lars Rodseth, 2005, "Introduction :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Frontiers," *Untaming the Frontier in Anthropology, Archaeology, and History*,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Perdue, Peter C., 2005. "From Turfan to Taiwan : Trade and War on Two Chinese Frontiers," Bradley J. Parker and Lars Rodseth eds., *Untaming the Frontier in Anthropology, Archaeology, and History*,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Robinson, Kenneth R., 2010. "Residence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Peninsular Northeast During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Sun Joo Kim ed.,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Seattle &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Roth-Li, Gertraude, 2002. "State Building Before 1644," Willard J. Peterso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Part One : The Ch'ing Empire to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ichakul, Thongchai, 1994. *Siam Mapped :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bstract ■

## From National History to Frontier History

— A New Perspective for the History of Manchu and Chosŏn Relations —

Kim, Seon-Min

This paper reviews various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of the Jurchen-*cum*-Manchus to Chosŏn, especially analyzing the ways in which Mongke Temur and Nurhaci, the ancestors of the Qing imperial court, have been discussed in Korean, Japanese, and the American academic circles, respectively. A critical reading of the conventional narratives of the Chinese and Korean relationship shows that the frontier peoples living in Manchuria between Ming and Chosŏn were largely described within a narrow, limited frame of national history, a perspective that hardly allows us to understand the fluidity and transformability of the Jurchens and Manchus. Conversely, national history projects an image of the frontier peoples as a unified and stable group, occupying their own separate territory and culture, but having an inferior statu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hierarchy dominated by Ming and Chosŏn.

As a critique to such traditional accounts of the Chinese and Korean relationship embedded with essentialism, this paper offers frontier perspectives, a new idea that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frontiers and borders where different groups of people had contact, exchanges, and conflict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frontier perspective is that it challenges one-directional, territory based, and nation-state centered understandings. It focuses on transnational subjects crossing the boundaries of national history and different ethnic groups, therefore helping us understand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Jurchens were transformed to be the Manchus through their constant contact with Ming Chinese and Chosŏn Koreans. By proposing specific definitions for terms such as

frontiers, borderlands, and borders, the frontier perspective can better expla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pace between Ming-Qing and Chosŏn from frontiers to borderlands and borders. It also explains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eighbors.